

쓰기 문법 연습

N이란

- 명사와 어울려서 쓰이며, '-이라고 하는 것은'의 준말이다. 동사의 명하형에도 쓴다.
- 의미상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 뜻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'는/은'과 바뀔 수 있다.

예문

- 친구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가 아닙니까?
- 인생이란 길고도 짧은 것이다.
- 행복함이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.

Avst(으)라고

명령문은 상태동사에 쓰지 않은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상태동사와 쓸 수도 있다. 이 때는 명령이라기 보다 바람이나 기원을 나타낸다.

예문

- 듣기 편하라고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.
- 앉기 편하라고 의자를 놓았어요.
- 모두들 시원하라고 에어컨을 켰다.
- 한국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라고 엿이나
chapssal-tteok을 선물한다.

Avst기를 바라면서

- 친구가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부탁을 했다.
- 아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 준다.

Avst기 위해서

앞의 내용은 목적을 나타내고, 뒤에 내용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.

- 한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한다.

글이나 격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`~기 위하여`를 사용하기도 한다.

형용사는 `아/어지다`를 붙여 사용한다.

- 나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조깅을 한다.

Avst는 바람에

‘-는 바람에’는 동작동사에 붙어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한다.

-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등산을 갈 수 없었습니다.
-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.
- 달리기 시합에서 앞 친구가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1등을 했어요.

Avst(으/느)니만큼

앞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을 인정함이 이유로 나타나며, 뒤에 내용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. `-(으)니까 더욱/단연히/반드시`의 뜻이다.

`-(으/느)니만큼`에는 `았/었` 이나 `-겠`을 쓸 수 있다.

앞뒤의 주어가 같거나 달라도 쓸 수 있다.

예문

- 일찍 출발하느니만큼 늦지는 않을 것이다.
- 집이 회사에서 가까우니만큼 20분 전에 출발하면 충분할 것 같다.
- 최선을 다 했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.

N에 대해서

명사에 붙어서 `그 사물에 관하여`, 또는 `사물을대상으로 하여`의 뜻을 나타낸다.

- 나는 한국 경제 문제 **에 대해서** 논문을 썼다.
- 한국 풍습 **에 대해서는** 저는 하나도 몰라요.

Vst(으)나

앞과 뒤의 사실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조될 때 사용한다. 주로 문어체와 격식체에 사용한다.

- 질은 좋으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
- 인스턴트 음식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나 건강에 해롭다.

Vst았(었,였)으면 하다 / 좋겠다/싶다

-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거나 현재의 상황과 상반되는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.
- `(으)면 좋겠다`의 형태로 사용하기도 한다.
`(으)면 좋겠다`보다 `-았/었으면 좋겠다`를 사용하면 좀 더 강조의 표현이 된다.

예문

- 가: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?
- 나: 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.

- 가: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까요?
- 나: 아니요. 저는 시원한 주스를 마셨으면 해요.